

#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함진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2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20.

발 의 자 : 함진규 · 김기선 · 이채익  
정유섭 · 이철규 · 이은권  
안상수 · 김태흠 · 홍문표  
최경환<sup>한</sup> · 윤영석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불임·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.

이에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).

#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7호 및 제7호의2의”를 “제7호부터 제7호의3까지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때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)”를 “때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3.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

제45조제1항제1호 중 “제44조제1항제1호의”를 “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불임·난임의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(휴직)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제44조(휴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7호부터 제7 호의3까지의----- -----.
1. 신체상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)	1. ----- -----때
2. ~ 7의2.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2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7의3. 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
8. ~ 12. (생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----- -----.
1.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	1.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-----

<p>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 만,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/p> <p>2. ~ 11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